

결혼 기념일

오늘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처음 만나 연애한 날로 부터 하면 3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막상 결혼기념일이라고 계산해 보니 30년이 지났을 뿐, 아내는 불과 몇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다.

우리 결혼 생활은 공교롭게도 10년 단위로 나뉘어진다. 결혼 초기의 10년동안은 봉급생활자 시절이었다. 대기업에 입사해서 고속으로 승진하게 되고 더욱 더 조직에 인정받기 위해 회사에 미쳐서 산 세월이다. 그동안 아내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익숙치 않는 시집살이 한다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모르지만 마음 고생을 많이 한 시절이었다. 지금도 그 시절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할 정도이니까. 그 다음 10년은 내 사업을 한 세월이다. 사업이 잘 되어 승승장구 할 때에는 곧 여러개 회사를 이끄는 중견 기업체 사장이 될 것 같아서 회사와 직원들과 일에 미쳐 살았다. 잘 나가던 회사는 IMF로 회사가 기울고 마침내 회사를 정리할때까지는 오로지 회사를 살려보려고 미쳐서 몸부림친 세월이었다. 모든 재산은 날라가고 혼자 빈털터리가 되어 죽음을 생각할때 주위를 돌아보니 아내만이 내 곁에 있었다. 지금도 나는 가끔 꾸는 꿈이 있다. 비바람 몰아치는 허허벌판에 아내는 어린 시절의 흑백사진 모습으로 홀로 서서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꿈이다. 나는 그런 아내에게 옆에 있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당신은 바보’라고 말한다. 그때 나를 버리고 떠났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모진 남자다. 그리고 10년은 미국으로 이민온 세월이다. 빈털털이로 왔으니 나는 당장 먹고 사느라 미쳐서 산 세월이었다. 여행 비자로 왔으니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도 수중에 돈 만불 만들기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가장 아빠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자식들에게는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던 시절이었다. 감정은 통제 안되고 버럭 화내기 일쑤고 매사 독선적이니 가족들과도 마찰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이민 10년동안 나는 가족들에게 해 준 것이 없는데, 가족들 신분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큰 딸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둘째 딸아이는 전공을

살려서 원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명 기업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다. 막내 아들놈은 나의 도움없이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만약 그분과 아내가 없었다면 이런 행복이 가능했을까. 돌이켜보면 나는 아내를 위해 해 준 것이 없다.나는 처절히 이기적이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스 <인생수업>에서 이렇게 말한다. “삶의 여행동안 당신의 임무는 사랑을 찾는 일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랑의 방해물을 찾아내는 일이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은 사랑에서, 삶에서,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믿음이다. 나는 아내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의 소원은 없다.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으니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되길 소원하지도 않고 무엇을 해 달라고 원하지도 않는다. 꽃은 그 홀로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내가 아름다운 꽃이라 불러 줄때 아름답다고 하지 않는가. 아내는 내 옆에 있기만 하여도 아름다운 여인이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불필요한 방해물은 없다. 있다면 나의 독선과 아집과 거친 습성뿐이다. 앞으로의 10 년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두려움은 갖지 말기로 하자. 앞으로도 갈 길은 멀게 보일 수 있고 <여유로운 삶>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하자. 그래서 결혼 40 주년 때는 더욱 멋있는 아내의 남자가 되도록 하자.

어제 저녁은 뉴욕에 사는 둘째 딸이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여서 가족 모두가 우리 결혼 30 주년을 축하해 주었다. 오늘 아침에는 호수가 있는 공원에 가서 아내에게 색소폰 독주를 들려주려고 했다. 봄의 꽃들과 함께 호숫가 벤취에 아내를 모셔 놓고 그동안 준비한 20 여곡을 불러 줄 계획이었다. 그런데 비가 세차게 내려 도저히 독주회를 할 수가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생크림 케익과 커피를 준비하고 아내 앞에서 10 여곡을 불렀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않기 위해 당초의 예정곡보다 절반으로 줄였다. 마침 주일날 아침이라 평소 아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5 곡과 상송, 팝송, 한국가요를 선곡해서 불렀다. 마지막 곡을 부를 때는 아내의 눈에 약간의 이슬이 맺히기도 했다. 작년 가을부터 처음으로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하여 째째 연습한다고 했는데 충분히 연습하지 못한 것이 여간 아쉬웠지만 대체로 무난한 연주였다고 자평한다. 아내는 내가 색소폰 부는 소리를 처음 들었다. 그동안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연습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고물뎀을 끌고 공원에 나가 혼자서 연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겨울이 되고 해가 짧아 연습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겨울에 추운 차 안에서 연습하다가 2 주일 정도 호되게 감기를 앓은 적도 있다. 결국 바쁘다는 핑계삼아 연습을 게을리 한 것이다. 하지만 내가 색소폰을 배운 이유가 아내 한사람에게 들려 주기 위함이었고 그 아내가 나의 색소폰 연주를 만족해 하고 행복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알프레드 디 수지는 말한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아내에게 결혼 30 주년이 의미있는 하루였기를, 부디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길 소망한다.